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주관부서	재무과	
일시	2020.1.9.(목) 14:00	
장소	(춘천) 부총장회의실 / (삼척) 교육지원처장실	
참석인원	위원 9명(위원장포함)	
참석자	김명동 위원장, 강욱현, 이상준, 오성훈, 박종범, 이승민, 최세영, 김영식, 이호숙	
불참자	최희봉, 김진국, 엄재수	
배석자	(재무과) 김근호 과장, 이경아 팀장, 강현종 주무관 (경영대학원) 김수진 실장, 김정하 주무관 (정보과학·행정대학원) 전진경 주무관 (농촌사회교육원) 이선미 팀장	
회의방법	대면심의	
회의 진행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참석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인사말씀 ○ 의안심의 ○ 폐회선언
상정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 공개강좌 등록금 책정(안)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 1) : 원안가결(위원 9명/ 9명 찬성) ○ 의안 2) : 원안가결(위원 9명/ 9명 찬성) 	
비고	화상회의 실행	
작성자	담당자 : 강현종 (☎250-7048)	팀 장 : 이경아 (☎250-7046)
		과 장 : 김근호 (☎250-7050)

발언내용

[성원보고]

(위원장) 성원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2020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성원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위원 12명 중 9명이 참석, 과반수를 충족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개회선언]

(위원장) 재무과장의 성원보고에 따라 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참석자소개]

(위원장) 먼저, 오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학부모 위원 순으로 소개하겠으니, 각 위원님께서도 다른 위원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춘천캠퍼스 교직원이신 강욱현위원님이십니다.

(강욱현) 학생과 강욱현입니다.

(위원장) 작년도 총학생회장 이상준위원이십니다.

(이상준) 네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총학생회장이었던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네, 올 2020년 총학생회장 오성훈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성훈) 2020학년도 총학생회장 오성훈입니다.

(위원장) 삼척의 2020학년도 총학생회장 박종범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범) 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총학생회장 박종범입니다.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박종범)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네. 춘천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국장 이승민 위원이십니다.

(이승민)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국장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신한회계법인 대표 김영식 위원님이십니다.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신한회계법인에서 외부전문가로 온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교육청에 재산담당사무관인 이호순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호숙) 강원도교육청에 재산담당 이호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네. 학부모대표로 최세영 대표님 또 수고해주시고 계십니다.

(최세영) 반갑습니다.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시나리오에는 제가 인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대학 뿐 아니라 모든 대학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무표를 갖춰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정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안들을 가지고 우리 전문가님, 학부모님, 캠퍼스별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참 좋은 의견을 모아서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회의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회의자료 설명

- 재정여건 설명(세입예산 감소 및 세출예산 증가에 따른 대학재정 여건의 악화)
- 재정현황 설명(2020학년도 등록금 세입 및 세출 예상액)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방금 들으신 설명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강욱현) 수업료1과 2가 무슨 차이인가요?

(재무과장) 수업료1은 예전의 수업료이고, 수업료2는 기성회비, 예전의 기성회비를 수업료2라고 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쭙어보겠습니다.

알면서도 여쭙어보는 것인데 매년 학년별로 공회 499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단순 산출식으로 봤을 때 과거대비 2015년 대비 등록금 수입감소액이 연간 얼마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기 편할까요?

(재무과장) 2016년부터 감소되었기 때문에, 2015년 기준으로 하면 2020년도에 1996명, 약 2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1인당 약 400만원감안했을 때, 약80억원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그 80억에 입학금까지하면 굉장히 재정수입규모의 (약 95억), 사실, 재무과나 관심이 있는 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학내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구성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80억원이 없어졌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학교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사항이 없으시면..

아! 삼척캠퍼스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박종범) 네

[의안심의]

(위원장) 그럼 궁금한 위원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의안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1번의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안건 설명

(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4개방안이 있는 것인데, 이를 한꺼번에 4개를 심의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나누어서 토론하고 심의하고 넘어가고, 마무리 짓고, 이후 2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장학금2유형확보를 위한 내용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 대학본부에서 안으로 드린 것은 학부 등록금 중에서 수업료2를 학기별로 천원씩 인하하는 안인데, 왜 천원씩 인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이경아 팀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팀장) 네, 국가장학금2유형을 수혜받으려면 평균등록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평균등록금이 전년대비 상승하게 되면 국가장학금2유형에 대하여 대학이 아예 제외가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자유전공학부라는 특이한 학부가 생기면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다보니까 2020년도에 동결하게 되면 평균등록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천원씩 최소단위로 천원씩 전계열을 인하하게 되면 평균등록금이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산출이 돼서 전계열을 천원씩 내려 국가장학금2유형 혜택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팀장님 제가 여쭙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유형2는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큼 수혜를 받았습니까?

(예산팀장) 2019년도에는 31억정도 수혜했구요. 작년도에는 40억 넘게 수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등록금 학기별로 학기별 천원씩 감했을 경우, 재정적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팀장) 지금은 한 2,000만원 정도, 1,642만원정도 천원을 인하하기 전과 이후에 차익은 1,6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 제가 아는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평균등록금이란, 학생1인당 평균등록금을 의미하고 전체 대상 등록금을 가지고 전체, 충원, 재학생을 감안하여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년도 대비 학생 1명당 등록금 명목상 등록금이 단 1원이라도 증가할 경우 국가장학금, 우리 같은 경우 30억원의 국가장학금유형2를 학교전체가 수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학기별로 학생 1명당 천원씩 인하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대학 본부에서 그 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의안1의 세부1안이 되겠는데요. 요 부분에 대하여 의원 분들 질문주시고 토론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숙) 천원씩 인하해가지고 1,600만원정도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얻는 국가장학금2유형 확보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국가장학금을 31억원 확보했거든요. 내년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혜할 것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면제받는 금액이 2유형이 31억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욱현) 학부만 해당되는것인가요? 대학원은 해당되지 않나요?

(예산팀장) 네, 학부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3번안이 있습니다. 그때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세부1안에 대하여 혹시 삼척캠퍼스 질문있으십니까?

(박종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 대표 위원님들 의견주십시오.

(이성준) 저는 딱히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성훈) 네 의견은 없습니다.

(김영식) 궁금한 것은 학부등록금을 내리는 것과 2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원과 별개입니까?
천원씩내리는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천원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동결입니다. 저희가 산술식의 제한인데요. 재학생들을 나누어
1인당 등록금이 단 1원이라도 증가하면 유형2, 30명씩 전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방법이라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된 거죠.

삼척캠퍼스 의견없으십니까?

(박종범)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없으십니까?

(전 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자 그러면 대학본부에서 제안한 학부등록금 수업료2에 대하여 학기별로 1천원 인하하는
본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총 삼척캠퍼스 포함 9분이 찬성하시는 것으로 해서 세부1안이 되겠습니다. 학부등록금
수업료2의 1천원 인하하는 건은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등록금 내용인데요.

배경설명은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상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법학전
문대학원을 지원받는데, 좀 애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등
록금을 동결하고자 하는 것이 본부의 (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숙) 법학전문대학교 평가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인센티브는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등록금인상하게 되면 네거티브 평가입니다.

(이호숙) 아니, 지금 5년간 동결했잖아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결(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럼, 강원대학교에 플러스 요인이 작용하겠죠?

(위원장) 플러스요인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위반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이호숙) 그럼 플러스요인은 없는건가요?

(위원장) 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이게 법학전문대학원 설립할 때 5년간 동결하기로 했고, 위반시 제재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척캠퍼스 위원님들 의견주십시오.

(박중범) 없습니다.

(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습니까?

(전 원) 없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등록금 동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9분이 찬성해주셔서 세부2안도 심의를 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자. 세부3안 일반특수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작년에 대학원생의 넓은 마음 덕분에 2% 인상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는 동결로 대학본부에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대표가 학부 등록금은 인상하지 않고 대학원 등록금에 인상하면서 대학본부에 장학금 확충 등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졸업한 학생, 전일제 학생에게 2억 3천 장학금 증액되었구요 겨울방학때 추가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나름 대학본부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특수대학원 등록금 동결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숙) 작년엔 2%정도 인상되었다는 총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재무과장) 2억5천정도 됩니다.

(이호숙) 2억5천정도 되는데, 대학원 2억3천을 장학금을 주었다면 지금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위원장) 작년에는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구요. 대학재정사업에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삼척캠퍼스 의견을 주십시오

(박중범) 네, 없습니다.

(위원장) 사실 작년에 대학원생들에게 많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나름 본부에서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도 대학본부를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부3안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등록금 동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9분이 찬성하여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세부3안도 심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1번의안에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의학전문대학원이 내년부터 의과대학으로 체제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자세히 표시 되었지만, 참고1에 각종 평가, 인증, 국가고시 등 다양한 부분이 증액, 소요될 것으로 봤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였고, 8페이지에 1%, 1.5%, 1.95% 세가지로 비교하여 인상치를 표시하였습니다. 최대 1.95%인상시, 총 4,200만원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동대학원에서 수업료2에서 1.95%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4억3천 소요예산이 증가한 반면에 수입액은 4천2백이 증액될텐데, 그 차액을 어떻게 충당하고자 하는지요?

(재무과장) 참고5를 보시면, 증가대비 4천2백이지만 실제 들어오는 세입은 24억정도 됩니다. 이를 의전원에 배정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도 반영되었나요?

(예산팀장) 준비기간입니다.

(위원장) 네, 저희가 25명 정원이 증원됩니다. 해가 지날수록 쌓이게 되니까 갭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준) 의과대학으로 전환하게 되면, 의과대학은 타 대학보다 등록금이 비쌀텐데 그러면 또 인하하게 되나 궁금합니다.

(예산팀장) 평균등록금 산출하는 방법 중에 신설과에 대하여 고려받는 부분이 있어요. 대학원은 사라지지만 대학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학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인거죠. 의전원일 때는 평균등록금 산출할 때 빠져 있는데, 들어올 때를 염려하는 것이죠.
의견주십시오. 삼척캠퍼스 의견주십시오.

(박종범) 없습니다.

(위원장) 여기 의원님, 의견주십시오.

(전 원) 없습니다.

(위원장) 네 번째 의전원 등록금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9분이 거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안 넘어가기 전에 1안의안인

학부등록금 수업료2 학기당 1천원인하, 법학전문대학원 동결, 일반특수대학원 동결, 의학전문대학원 1.95% 인상 심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2번째 의안입니다.

2번째 의안은 공개강좌 등록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작년과 동일하게 되었기에 크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지금 공개강좌 등록금 안이 다른학교와 비교했을 때, 최고경영자과정 같은 경우, 강원권만 봤을 때 강릉원주대보다 낮은 건가요? 저희도 그 정도 올려도 될 듯 싶습니다.

공개강좌 등록금 책정안인데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거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현) 공개강좌도 등록금이라고 하는건가요?

(예산팀장) 등록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위원장) 계속 죄송합니다. 삼척캠퍼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주십시오.

(박종범) 없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있으시면 의견주십시오.

(김영식) 처음하는거라 잘모르겠는데요. 최고경영자과정, 부동산 과정 등 대학에서 수익사업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재정도 없고 학생부담 줄이기 위해 동결하는 만큼, 이 부분을 증액해서 강의실 경쟁을 생각했을 때 그 재원을 학부에 환원하는 것을 어떤지요?

(위원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다른 거점대학과 다른 점이 비교 열위에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 안되어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저렴하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후 인상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인상 잠재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추가 인상요인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숙) 그러면 공개강좌 등록금과 같은 세입재원은 어디든 투자할 수 있는 체제인가요?

(재무과장) 공개강좌는 수입대체경비로 그 대학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회계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최고경영자과정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학생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의안2는 단일안건인데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호숙)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전 체) 없습니다.

(위원장) 의원2번째가 되겠습니다. 공개강좌 등록금 책정(안) 동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또, 9분입니다. 의안 2번째에 대하여 심의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폐회하기 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공개강좌 등록금이 1년단위인지 학기단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1학기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삼척캠퍼스 의견없습니까?

(박종범) 없습니다.

(이상준) 의학전문대학원이 1.95%인상하면 1학기에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팀장) 10만천원? 정도입니다.

(이호숙) 위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학생위원이 많은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원장) 폐회하기전에 위원님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등록금이 1,000원이지만 인하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는 대학원생들이 참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폐회]

(위원장) 다들 의견이 없으시면 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